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하편>>

## <차례>

### 6. 한국 문학의 이해

- (1) 가시리 / 진달래꽃 ----- 1쪽 (30문제)
- (2) 상춘곡 / 울타리 밖 ----- 15쪽 (29문제)
- (3) 춘향전 ----- 27쪽 (44문제)

### 7.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

- (1)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 49쪽 (14문제)

###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 (1) 세종어제훈민정음 ----- 58쪽 (61문제)
- (2)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동 ----- 74쪽 (60문제)

###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 (1) 토론과 논증 ----- 93쪽 (12문제)

### 10. 문학과 삶

- (1) 광야 / 신의 방 ----- 101쪽 (40문제)
-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116쪽 (51문제)
- (3) 오해 ----- 151쪽 (16문제)

▶정답 -----161쪽

▶해설 -----164쪽

(버전: 2020.08.04.)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내용**

**①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



**②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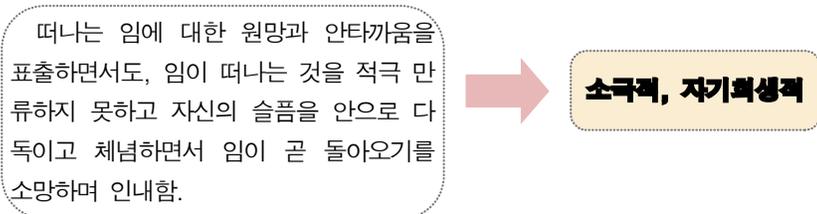
- ① 소재: 이별을 소재로 하여 정한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 많음.
- ② 음보율
  - 음보율은 시를 끊어 읽는 단위인 음보를 바탕으로 하는 운율로, 3음보율과 4음보율이 대표적임.
  -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적인 운율 가운데 하나
  - 현대 시에도 음보율이 계승되어 나타남.

**③ <가시리> 제제 정리**

<b>김대</b>	고려 가요	<b>성격</b>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
<b>제제</b>	임과의 이별	<b>주제</b>	이별의 정한
<b>특징</b>	① 운율: 각 행이 3·3·2조를 기본으로 다소의 가감을 보이는 3음보격 ② 형식: 각 연 2행의 분연체(연장체) ③ 구성: '기-승-전-결'의 구조 ④ 표현: 반복법 사용, 순우리말 시어, 간결하고 애절한 가사 ⑤ 민요였던 것이 고려의 궁중 음악인 속악으로 개편되면서 투식어(여음, 나눈)와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보임.		

**■ <가시리>의 특징**

- ① 시적 화자의 입에 대한 태도



- ② 여음 '나눈'과 후렴구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디)' 사용 → 노래에 리듬을 조성하고, 시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함.
- ③ '나눈'과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하고 끊어 읽을 때 대체로 각 행을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음. → 3음보 율격

**㉔ <진달래꽃> 제지 정리**

<b>김매</b>	자유시, 서정시	<b>성격</b>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b>제지</b>	임과의 이별	<b>주제</b>	승화된 이별의 정한(情恨)
<b>특징</b>	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② 민요를 계승한 3음보(음보 기준), 7·5조의 율격(음수율 기준)에 전통적 정서를 담고 있음. ③ 1연과 4연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음.		

**■ <진달래꽃>의 특징**

① '진달래꽃'의 의미: '진달래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상임.

**'진달래꽃'**

- 자신의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한 시적 화자의 분신
- 임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사랑
-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
- 임에 대한 헌신과 희생, 순종

② '진달래꽃'의 음보율: 각 연의 첫 번째 행이 2음보, 두 번째 행이 1음보, 세 번째 행이 3음보로, 행에 따른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리듬에 변화를 줌.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③ 반어적 표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겉으로는 이별을 견뎌 낼 것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 작자미상, '가시리'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작자미상, '신아리랑' -

**동안고등학교 (경기)**

1.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연은 제발 떠나지 말라는 애원이 담긴 말이구나.
- 2연은 1연에 나타난 화자의 애원이 고조되어 원망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
- '선후면 아니 올세라'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는 아쉬움을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셜은 님'은 '셜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 화자의 복잡한 속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는 임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동안고등학교 (경기)**

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통적 정서를 동일한 호흡으로 노래하여 시에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한다.
- '-우리다'의 반복으로 시 전체에 체념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여성적인 목소리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 겉으로 드러난 순종적인 언어와 행동, 그 아래 숨은 미련과 원망의 감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 이미 벌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동안고등학교 (경기)**

3. (가)가 속한 문학 갈래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고려시대의 민요  
 ㄴ. 3음보의 정형화된 율격  
 ㄷ. 대부분의 작품에 여음과 후렴구가 있음  
 ㄹ. 창작 당시 한자로 기록되어 전하다 후에 한글로 기록  
 ㅁ. 사대부의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ㄷ, ㄹ, ㅁ
- ㄴ, ㄷ, ㅁ
- ㄱ, ㄴ, ㄷ, ㄹ

**동안고등학교 (경기)**

**4. <보기>의 화자가 (가)~(다)의 화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지내시나요?  
달 밝은 사창엔 소첩의 한이 가득합니다.  
만일 꿈속의 녀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의 돌길은 이미 모래가 되었겠지요.

- 이옥봉, '자술' -

- (가) : 당신의 임은 그래도 말을 하면 응답을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군요.
- (가) : 기다리면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당신이 부럽네요.
- (나) : 나도 당신처럼 슬프면 '슬프다', 아니면 '아니다' 대놓고 감정을 표현할 걸 그랬어요.
- (나) : 임이 보고 싶어 매일 밤 그 집 앞을 서성이는 내 심정을 당신의 진달래꽃에 비유해도 될까요?
- (다) : 나에게 차가운 임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저주를 퍼붓는 당신의 모습 정말 멋져요.

**동안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시오.**

<보기>

(가)~(다)는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화자의 속마음은 모두 결국 ( ■ ) (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성이자 이 작품들의 주제인 ( ■ )을/를 발견할 수 있다.

<조건>

1. 답안 작성 시 해당 기호를 밝혀 답을 구분할 것
2. 기호를 쓰지 않은 경우 ■→■의 순서로 간주하여 채점함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보란 소리 음(音)자와 걸음 보(步) 자를 써서 소리의 걸음이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시를 읽을 때 이러한 음보, 곧 호흡의 단위로 끊어 읽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얻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한다.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율격은 3음보와 4음보인데 이 음보율은 현대에도 계승되어 나타난다.

음보율과 함께 시의 운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수율이 있는데, 이는 음절의 수를 일정하게 나타냄으로써 리듬감을 얻는 방법으로 3·4조, 4·4조, 7·5조가 있다. 그런데 한국 시가의 음보는 이와 같은 음수로 간단히 정의되지 않는다. 실제 음보를 따지기 위해 작품에 적용해 보면 3·4조, 4·4조, 7·5조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음수를 기준으로 음보를 따지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음절 및 각 음절이 지니는 장단(長短)의 등가성, 즉 '시간의 등장성'에 따라 음보를 나누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렇듯 '시간의 등장성'이라는 호흡의 단위로 음보를 측정하면 한 행을 이루는 음보수가 모자라거나 특정 어구의 음절수가 불규칙한 경우에도 음보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화야▽너는 어이▽삼월동풍(三月東風)▽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네 홀로▽피엿느냐▽(∅휴지)  
아마도▽오상고절(傲霜孤節)은▽너뿐인가▽하노라.

- 이정보

위 작품의 초·중장은 대략 3·4조, 4·4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음보가 중첩된 4음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장의 경우 3·4조나 4·4조로 음수를 따지기가 난감하다. 다른 행들과 달리 음보가 모자라 음보의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위의 ∅ 표시처럼 초장과 중장에 구현된 4음보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휴지(休止)를 두어 읽으면 중장 역시 4음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조는 3·4조나 4·4조 때문이 아니라 3~4음절을 주로 한 '시간의 등장성'의 반복 때문에 정형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나빌레라. //  
파르라니▽깎은 머리 /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 조지훈, 「승무」

「승무」 역시 음절의 수로는 운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4음보의 기준 음수인 3·4조나 4·4조와 비교해 볼 때, 두 개의 음보가 중첩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이얀 고깔은'과 같은 '과음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음절의 경우 호흡을 약간 빨리 하여 속도를 높여 다른 어구와 시간을 맞추면 된다. 반대로 짧은 음절의 어구는 다른 어구

보다 속도를 늦추어 읽으면 된다. 결국 '시간의 등장성'으로 파악해 보면 「승무」 역시 2음보가 중첩된 4음보 음절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호흡 단위의 분절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행이나 연, 무조건적인 어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통사적으로 끊어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정보의 시조에서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춘풍(三月春風) 다 지내고'는 하나의 통사구조이지만 이는 다시 '국화야 너는 어이'의 첫 번째 통사적 의미 단위와 '삼월춘풍(三月春風) 다 지내고'의 두 번째 통사적 의미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지훈의 「승무」에서도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의 첫 번째 통사적 의미 단위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의 두 번째 의미 단위로 통사 구조가 나뉜다. 다시 말해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춘풍(三月春風)(三月春風)다 지내고'와 같이 끊거나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등으로 끊으면 통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등장성(等長性) : 발화 시 시간적으로 동일한 길이를 지니는 성질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설운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디)

- 작자미상, 「가시리」

(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A]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작자미상, 「신아리랑」에서

**대륜고등학교 (대구)**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음보율은 소리의 걸음을 단위로 하여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 음보는 3·4조, 4·4조, 7·5조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수만으로 정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시간의 등장성은 각 음절이 지니는 장단의 속성이 실현되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 음보를 나누는 호흡 단위의 분절은 통사적으로 끊어지는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과음절이나 짧은 음절의 경우에는 어구를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 음절이 존재하는 단위에는 휴지를 두어 읽는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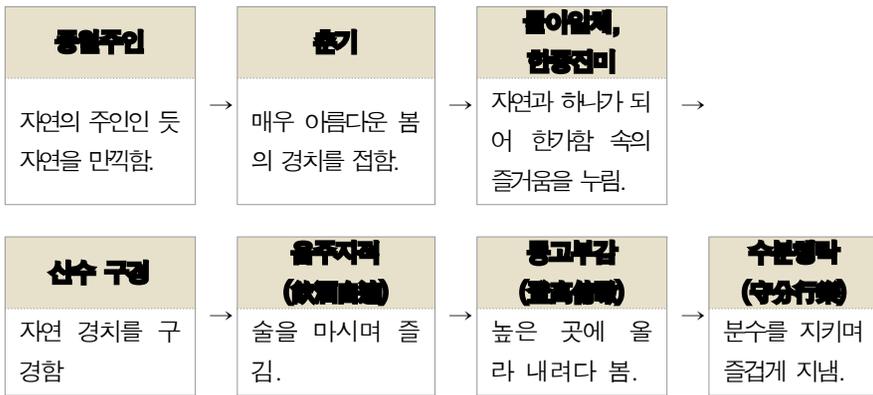
**㉠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 태도**

- ① 우리 선인들은 자연을 지배와 개척의 대상이 아니라 어울려 지내야 할 친화의 대상으로 여김.
- ② 한국 문학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나 자연과의 조화를 노래한 작품이 많음.

**㉡ <상춘곡> 제지 정리**

<b>길목</b>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강호 한정가
<b>성격</b>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예찬적
<b>제지</b>	봄의 아름다운 풍경
<b>주제</b>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
<b>특징</b>	① 직유법, 대구법, 의인법, 인용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상춘곡>의 내용 전개**



**■ <상춘곡>에 나타난 화자의 인생관**

	속세 사람들	화자
<b>처한 상황 가져 있게 여기는 것</b>	흥진에 문혀 있음. 공명, 부귀	산림에 문혀 있음. 풍류, 한중진미, 청풍명월

**[화자의 인생관]**  
자연 친화적인 소  
박한 삶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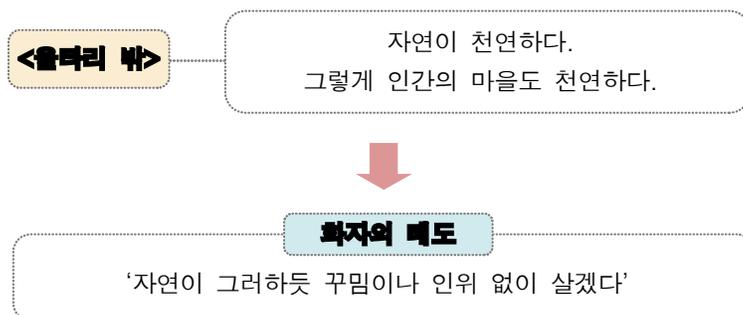
**㉔ <울타리 밖> 제지 정리**

<b>김씨</b>	자유시, 서정시	<b>성격</b>	서정적, 향토적, 자연 친화적
<b>제지</b>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b>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li> <li>•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li> </ul>		
<b>특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림.</li> <li>②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함.</li> <li>③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실태를 강조함.</li> </ol>		
<b>구성</b>	<p><b>[1연]</b> 고향의 소녀·소년(인간)과 들길(자연)  <b>[2연]</b>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b>[3연]</b> 꾸밈이 없는 모습(상태)  <b>[4연]</b>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의 조화</p>		

**■ <울타리 밖>의 '천연하'의 역할**

<b>1연</b>	인간과 자연의 모습 '소녀 / 소년 / 들길 / 아지랑이 / 태양 / 제비 / 물'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과 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 줌.</li> <li>• 시상을 집약하며 주제를 함축함.</li> </ul>
<b>2연</b>	<b>천연하</b>	
<b>3연</b>	인간과 자연의 조화 '마을 / 화초 / 잔광 /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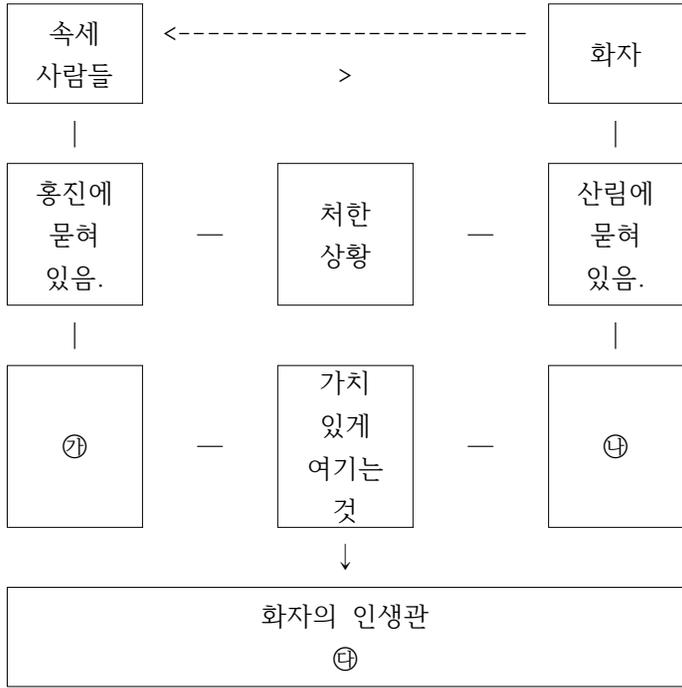
**■ <울타리 밖>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대륜고등학교 (대구)**

4. ㉠~㉣에 들어갈 말을 아래 <조건>에 따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조건>
- ㉠와 ㉣는 윗글에서 각각 시어를 2개씩 찾아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는 표의 '처한 상황'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교하고등학교 (경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3음보 연속체의 가사이다.
-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 첫 구와 유사하게 끝나는 변격가사에 속한다.
- '서사-본사-결사'의 구조를 통해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 혼잣말 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화자의 심정을 더욱 절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로서 산문 문학에서 운문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교하고등학교 (경기)**

6.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	화자의 정서
<input type="checkbox"/>	초가집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input type="checkbox"/>	사립문	한가로움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
<input type="checkbox"/>	시냇가	술을 마시며 느끼는 흥겨움
<input type="checkbox"/>	들	탈속의 경지에서 느끼는 적막감
<input type="checkbox"/>	산봉우리	자연을 관조하는 가운데 느끼는 만족감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교하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저녁 무렵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풀이 가랑비를 맞고 있는 모습
- 정자에 혼자서 앉아 시를 읊조리며 자연을 감상하는 모습
-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을 하거나 낮에 호젓하게 낚시질하는 모습
- 떨어지는 풀잎 아래에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을 세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
-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에 진달래를 부여잡고 산을 오르는 모습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紅塵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생涯에 었더흔고  
 넷사름 ㉠風풍流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天地地間간 男남子子자 몸이 날만 흔 이 하건마는  
 山山林림에 못쳐 이셔 至지樂락을 므를 것가  
 數수間間間茅모屋옥을 碧벽溪계水수 얹피 두고  
 松송竹죽 鬱울鬱울裏리에 風풍月월主主人인 되어서라  
 었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도花황杏행花화는 夕석陽양裏리에 뛰여 잇고  
 綠녹楊양芳방草초는 細세雨우中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造造化화神신功공이 物物物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춘氣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교態태로다  
 物物我아一一體체어니 興흥이이 다들소나  
 柴시扉비에 거러 보고 亭亭子子자애 안자 보니  
 逍遙요吟음詠영하야 山山日일이 寂寂寂寂흔디  
 閒한中중眞진味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山水수 구경 가자스라  
 踏踏靑靑은란 오늘 흔고, 浴浴沂기란 來來日日일 흔새  
 아춤에 ㉤採採山山흔고, 나조히 鈞조水수흔새  
 긋 괴여 닉은 술을 葛葛巾巾건으로 밧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和風풍이 건듯 부러 綠녹水수를 건너오니  
 淸淸香향은 잔에 지고 落낙紅紅은 옷새 진다  
 樽樽中중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小童童 아히드려 酒酒家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매고

㉠微미吟음緩완步보 하야 시냇 7의 호자 안자  
 明明沙사 조흔 泚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淸流류를 굽어보니 淸淸니 桃도花화 | 로다  
 武武陵릉이 갖갑도다. 저 미이 권거인고  
 松송間間 細細路로에 杜杜鵑견花화를 부치 들고  
 峰봉頭두에 굽피 올라 구름 소그 안자 보니  
 千천村촌萬萬落락이 곳곳이 버려 잇니  
 煙煙霞하日日輝휘는 錦錦繡수를 재פת는 듯  
 었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유餘餘여홀사  
 ㉢功功名명도 날 싹우고, 富부貴귀도 날 싹우니  
 淸淸風풍淸淸月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단瓢瓢陋陋누巷향에 ㉣훈튼 혜음 아니 하니  
 아모타 百백年년行행樂락이 이만흔들 었지하리  
 - 정극인, '상춘곡' -

**교하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 : 자연물에 의탁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 :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 :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교하고등학교 (경기)**

9.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는?

<보기>  
 보리밥 ㅊ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싹긋 ㅊ 7의 슬 7지 노니노라.  
 ㅊ 나문 ㅊ나문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 <제2수> -

- ㉠
- ㉡
- ㉢
- ㉣
- ㉤

**내용**

**① 한국 문학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미의식이 나타난 골계미와 관련이 깊음.



**② 판소리계 소설**

- 조선 후기 서민 예술인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
- 당대 서민층이 쓰던 생활어로 이루어져있어, 작품이 매우 발랄하고 생동감에 차 있음.
-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옹고집전》, 《배비장전》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있음.

**③ <춘향전> 제지 정리**

<b>갈래</b>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염정 소설		
<b>성격</b>	평민적, 해학적, 풍자적	<b>시점</b>	전지적 작가 시점
<b>배경</b>	(시간적 배경) 조선 시대 후기, (공간적 배경) 전라도 남원		
<b>제지</b>	춘향의 정절		
<b>주제</b>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항거		
<b>특징</b>	①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음. ② 인물의 해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음. ③ 남녀의 사랑 이면에 인간 평등사상을 고취하고 있음.		

**■ <춘향전>의 서사 구조와 주제**

①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② '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 <춘향전>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

-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등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음.
-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였음.
-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한 수령들을 감찰함.
-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였음.

■ <춘향전>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궤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앙 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 ① 수령들이 당황하여 허둥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춘향에게 큰소리치던 변 사또도 말이 헛나올 정도로 겁먹은 모습을 보인다.
- ②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통쾌한 느낌이 들면서 체증이나 울분 같은 것이 가라앉음.
- ③ 부정적인 대상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남.

→ **수령과 번사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비판적 태도가 나타남.**

■ <춘향전>의 근원 설화(모티프)

- 열녀 설화: 여자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내용의 설화
- 관탈 민녀: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 내용의 설화
- 신원 설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는 내용의 설화
- 염정 설화: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룬 설화
- 암행어사 설화: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내용의 설화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습시라고 하여라.”

①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 영장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중략)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졸을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올망건 공단 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汗衫) 고의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青天)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낮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라.”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좌수(座首) 별감(別監) 낮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괘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멧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 서,“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흰화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이오.”

사대문(四大門)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고을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 줄새,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계양고등학교 (인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낮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인 문체로 장면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봉 영감’은 죄 없는 ‘춘향이’를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군.
- ② 가렴주구와 학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 ③ ‘본관 사또’는 ‘이몽룡’의 정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죄를 부하인 운봉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인물이군.
- ④ ‘춘향’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신분질서가 엄존하는 사회에서 퇴기의 딸로 살아가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사고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어.
- ⑤ ‘이몽룡’이 ‘본관 사또’를 봉고파직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부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여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

**계양고등학교 (인천)**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작품 전개상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암행어사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과 어휘 도치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⑤ ㉤: 상투적인 한자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굳건함을 표현하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4. ㉡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표현상 특징을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 영장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A]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나)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靑天)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랴.”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뉘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좌수(座首) 별감(別監) 뉘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괘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다)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열녀춘향수절가

**대연고등학교 (부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대화와 내적 독백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걸인의 비범함이 노출되고 있다.
- ② 화자를 통해 당대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 ③ 탐관오리의 수탈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사에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7. 윗글에 나타난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을 숨긴 몽룡이 허장성세(虛張聲勢) 부리는 장면에서 긴장되는군.
- ② 암행어사 출두하자 도망가는 사람들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 났군.
- ③ 어사또는 장원급제한 실력으로 시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 내렸군.
- ④ 가렴주구(苛斂誅求)하던 본관 사또가 두려움에 떠는 장면은 통쾌하군.
- 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정말 대단하군.

**대연고등학교 (부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비유를 통해 불의에서 정의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③ ㉢: 짧고 강렬한 대구를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 인물들의 동작을 희화화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⑤ ㉤: 언어 도치를 이용하여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9. <보기>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다)와 연관 지어 주제를 서술하시오.

〈보 기〉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께 뵈오니 성은(聖恩)을 못 잊어 하시더라.

**내용**

**Ⅰ 창의적 읽기**

- ① 개념: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읽기를 의미함.
- ② 방법: -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확인하기
  - 글쓴이의 관점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
  -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 찾기

**Ⅱ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는 표면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글에 반영하는데, 이때 글쓴이에 의해 어떤 관점은 강화되고, 어떤 관점은 억압됨.  
 →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글쓴이의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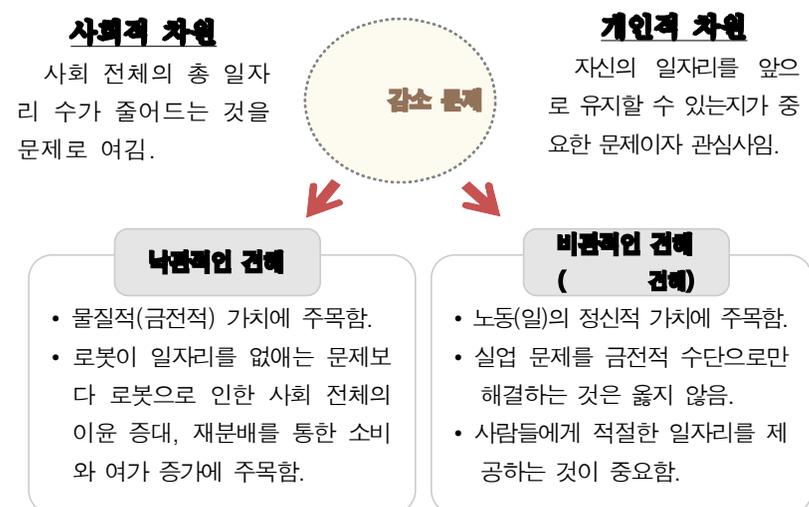
**Ⅲ 제지 정리**

<b>길목</b>	설명문	<b>성격</b>	설명적, 인과적, 설득적
<b>주제</b>	로봇 시대에 나타날 일자리 감소 문제와 그 해결 방안		
<b>특징</b>	①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미래 사회에 나타날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개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구성</b>	[처음] 산업 사회의 변화와 문제점 [중간] · 시대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 · 문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과 일자리의 필요성 [끝] 로봇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 로봇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전망**

- ① 낙관적 전망: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부가 가치가 늘어나면, 사회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을 덜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임.
- ② 비관적 전망: 기본 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 기 어려울 것임.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관점)**



■ **로봇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비판**

① 해결 방안

<b>사회적 차별</b>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어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면 된다.
<b>개인적 차별</b>	<p><b>[생각의 변화]</b>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으며 평생 직업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p> <p><b>[구체적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한다.</li> <li>• 둘째, 새로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한다.</li> <li>• 셋째,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li> </ul>

②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

- 일자리의 총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개인 노동자들의 현재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음.
-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면 된다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서 바라본 낙관적 전망임.
- 글쓴이가 주장하는 개인적 노력에 의한 대처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 로봇 시대의 도래와 같은 사회 변화에 개인적 노력으로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1의 기계 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로봇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 준다.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 주행 차,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재난 구조 로봇, 군사 로봇 등이 등장하였다.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숨 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나)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 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에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 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달라진 현실에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라)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인공 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며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제껏 사람이 해 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마)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다. 평생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숭한 어려움에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 나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든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끝으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구본권,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

**동안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업 사회의 변화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을 밝히고 있다.
- 산업 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낙관적 견해를 소개한 후, 미래에 늘어나게 될 부의 분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산업 사회의 특성에 따른 삶의 변화 양상을 예시를 들어 살펴본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산업 사회의 인간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로봇 시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산업 사회의 문제점을 정의한 후, 로봇 시대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러셀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동안고등학교 (경기)**

2.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에서 지식 기반 업무는 온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ㄴ. ㉡에서 인간은 반복된 기술훈련을 통해 로봇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다.  
 ㄷ. ㉡에서는 로봇이 한 번의 시행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ㄹ. ㉠에서 ㉡으로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 ㄱ, ㄹ                       ㄱ, ㄷ
- ㄷ, ㄹ                       ㄱ, ㄴ, ㄹ
- ㄴ, ㄷ, ㄹ

**동안고등학교 (경기)**

3. (다)~(마)를 읽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윤기 : 기본 소득의 보장 유무와 관련 없이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해.
- 정국 : 현대인들은 노동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임을 알게 되었어.
- 지민 :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은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시대에서도 중요한 사항이야.
- 혜주 :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사람도 기술적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해.
- 지현 :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체계화시켜놓은 구조를 완벽하게 수용한 뒤 인간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동안고등학교 (경기)**

4.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조건>에 맞게 차례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동현 : 이번에 사회선생님께서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라고 하셨어.  
 흥균 : 그러면 윗글을 활용하면 되겠네. 윗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종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 ㉠ )읽기'를 해봐. '( ㉡ )읽기'를 통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동현 :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는 윗글의 해결방안에 대해 체적으로 동의해.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를 지나치게 ( ㉡ ) (으)로 바라보았다고 생각해. 인간이 하던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 해줌으로써 인간이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조건>

1. 답안 작성 시 해당 기호로 밝혀 답을 구분할 것
2. 기호를 쓰지 않은 경우 ㉠→㉡의 순서로 간주하여 채점함
3. ㉠, ㉡은 각각 3음절의 한 단어로 작성할 것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 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1의 기계 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나)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 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 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이는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Quakebot)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의사와 약사의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국내에도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라)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 세나 기본 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 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중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에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마)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 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금호고등학교 (서울)**

5.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제2의 기계 시대에 지적이고 정신적인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했다.
- 로봇 시대에는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 미래 사회에서는 전문가의 일자리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 일자리에서 얻는 만족감은 로봇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대체될 수 없다.
- 현재 지식 기반 업무도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6.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 :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
- ㉡ :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자재의 가치
- ㉢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
- ㉣ :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
- ㉤ :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

**금호고등학교 (서울)**

7. (마)의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졸업하면 끝인 교육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익히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 자신의 기존 영역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변화에 필요한 과제를 창출해야 한다.
- 일자리 감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려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 최종 판단과 결정은 인간이 해야 하므로, 더불어 일하고 싶은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구분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변화 내용
표기	世·성宗중	세종	한자음을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함.
	·이런	이런	성조가 사라짐.
	·뿌·메	사용함예	표기에서 주로 이어적기를 사용함.
	성조(방점)	존재하지 않음.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소멸됨.
음운	:수·비	쉬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ㅅ, ㅆ, ㅍ, ㅂ)가 쓰임.
	·쁘·들	뜻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로 바뀜.
	퍼·디	퍼지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디'가 '-지'로 바뀜.
	스·를	스물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스물'이 '스물'로 바뀜.
문법	둥·꺾·에	중국과	중세 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음.
	·흙·배	하는 바가	주격 조사로 'ㅣ'가 사용됨.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변화

중세 국어	뜻	현대 국어	뜻	변화 유형
어·린	어리석은	어린	나이가 적은	의미 변동
놈	사람	놈	'남자의 낮춤말'	의미 축소
:어엿·비	가엽게, 불쌍히	어어빠	예쁘게	의미 변동

㉔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살려 줌.
-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노력함.
-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增補訓民正音

㉠나랏:말쓰미 ㉡中(중)國(국)에 달아 文(문)字(자)종(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홀씨 ·이런 전(전)초(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ㅁ)츨(내)제 ·ㅁ(ㅁ)들 사러 퍼디 :몬홀 ·노미 하  
 나라 ·내 ·아(아)를 ㉣爲(위)왕(왕)·하(하)야:어(어)엿(비) 너겨 ·새로 ㉤스(스)물(물)여(들)  
 字(자)종(를) 밍(7)노니 :사(사)름(마)다 :하(하)여 :수(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편)안(안)한(키) 하(고)져 홀 쓰(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  
 없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ㅁ’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군.
-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사뭇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소멸의 예이다.
-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의 예이다.
- ‘어엿보다’는 ‘가엷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쏘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본 소리 드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ㄱ와 ㄷ와 ㅅ와 ㅈ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와 ㅜ와 ㅠ는 ㉢올흔녀기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ㄱ와 ㄷ와 ㅅ와 ㅈ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 |             |          |     |
|-------------|----------|-----|
| ㉠           | ㉡        | ㉢   |
| ■ 文(문)字(자)종 | 나랏       | 퍼디  |
| ■ 百(백)姓(성)이 | 하(고)져    | 니겨  |
| ■ 밍(7)노니    | 이런       | 달아  |
| ■ 하(하)여     | ㅁ(ㅁ)츨(내) | 시러  |
| ■ 수(수)비     | 몬홀       | 하나라 |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쓰미	• 쓰들
• 뿌메	• 쓰르미니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라:말쓰미 中興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무·춤·내·제 ㉤쓰·들 사·러 퍼·디 :물·흙 ·노·미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뭇·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하·고·져 흙 쓰르·미·니·라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 서르   | 어엿브다 | :물·흙 ·노·미 하나·라   |
| ■ 니르고져 | 어리다  | 흙 ·배 이·셔·도       |
| ■ 날로   | 전초   | 나·랏 :말·쓰·미       |
| ■ 너겨   | 놈    | ·스·물·여·들 字·종·를   |
| ■ 사름마다 | 나라   |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라:말쓰미 中興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뭇·  
 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흙·배 이·셔·도 무·춤·내·제 ·쓰·들 사·러 퍼·디 :물·흙 ㉡노·미 하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뭇·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  
 메 便·便·安·안·키 하·고·져 흙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9. 윗글의 ㉠~㉡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보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의미 확대),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며(의미 축소),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의미 이동).

㉠ : 말솜                       ㉡ : 어리다                       ㉢ : 놈  
 ㉣ : 어엿브다                       ㉤ : 사름

**동방고등학교 (대전)**

10. 윗글을 읽고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현대 국어에서는 소실된 음운을 사용하고 있다.
- 체언과 조사를 적을 때 그 체언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랏:말싸·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쥬·와·로 서르 스뫓·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빅 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이·셔·도 무·츨·내제 ㉢  
 시·러·퍼·디·물·홍·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들·字·쥬·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뽀·매 便·뽀·安 한·키·하·고 저·홍·썩·르·미·나·라.

(나) 乃·냉·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쓰면 입시울가비야·본·소리 득·외·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뽀·디면 굴·바·쓰·라 냉·終·중·기 소리도 훈·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다)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뽀·씨  
 곱·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 古·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용비어천가」, <제2장>

**해운대고등학교 (부산)**

11. (가), (나)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음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자음 ‘△’과 ‘빙’이 존재하였다.
-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을 방점의 개수로 구분하였다.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종성에 음가가 없는 ㅇ이 있었다.

**해운대고등학교 (부산)**

12. <보기>와 어휘의 변화의 양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전·초’는 원래 까닭이나 이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단어이다.  
 ㄴ. ‘스랑·하·다’는 원래 ‘생각하다’와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ㄷ. ‘식·식·하·다’는 원래 ‘엄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용감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 |                              |                              |                               |
|------------------------------|------------------------------|-------------------------------|
| ㄱ                            | ㄴ                            | ㄷ                             |
| <input type="checkbox"/> 말솜  | <input type="checkbox"/> 불휘  | <input type="checkbox"/> 어리다  |
| <input type="checkbox"/> 불휘  | <input type="checkbox"/> 어리다 | <input type="checkbox"/> 놈    |
| <input type="checkbox"/> 하다  | <input type="checkbox"/> 놈   | <input type="checkbox"/> 어엿브다 |
| <input type="checkbox"/> 스뫓다 | <input type="checkbox"/> 하다  | <input type="checkbox"/> 어엿브다 |
| <input type="checkbox"/> 스뫓다 | <input type="checkbox"/> 말솜  | <input type="checkbox"/> 어엿브다 |

**해운대고등학교 (부산)**

13.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시’이 쓰였다.
-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 ㉢ :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 ㉣ :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가 쓰였다.
- ㉤ : 조사와 결합할 때 ‘기’이 덧붙는 체언이 쓰였다.

# <<전체 정답>>

## 6-(1) 가시리 / 진달래꽃

1.④ 2.① 3.① 4.② 5.(1) 이별의 슬픔 (2) 이별의 정한 6.① 7.③ 8.③ 9.③ 10.④ 11.③ 12.'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각 연의 끝에 반복되어 운율을 살리고 구조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였던 '가시리'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고 나라가 태성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13.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다. '진달래꽃'과 '뫼버들'은 화자의 분신, 사랑의 표상을 의미한다. 14.⑤ 15.④ 16.③ 17.① 18.⑤ 19.내용상 이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승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⑤ 21.⑤ 22.② 23.④ 24.⑤ 25.① 26.⑤ 27.② 28.④ 29.③ 30.⑤

## 6-(2) 상춘곡 / 울타리 밖

1.⑤ 2.① 3.④ 4.㉠공명과 부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중진미'와 '청풍명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5.③ 6.④ 7.③ 8.⑤ 9.⑤ 10.⑤ 11.⑤ 12.② 13.③ 14.③ 15.④ 16. '훗튼 혜음'은 '헛된 생각'이라는 뜻으로, '공명'과 '부귀'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17.④ 18.④ 19.① 20.① 21.① 22.① 23.① 24.⑤ 25.② 26.① 27.③ 28.③ 29.②

## 6-(3) 춘향전

1.④ 2.② 3.① 4.운율 형성, 장면 극대화, 편집자적 논평 5.① 6.④ 7.① 8.⑤ 9.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 10.② 11.⑤ 12.④ 13.③ 14.춘향과 몽룡의 재회 15.⑤ 16.④ 17.① 18.① 19.③ 20.고통 받는 백성과 춘향에게 환한 빛처럼 구원을 안겨줌. 21.③ 22.② 23.① 24.③ 25.적층 26.① 27.② 28.② 29.⑤ 30.③ 31.② 32.③ 33.④ 34.④ 35.③ 36.⑤ 37.④ 38.⑤ 39.④ 40.㉠: 편집자적 논평, ㉡: 반어적 41.① 42.② 43.② 44.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

## 7-(1)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1.① 2.① 3.⑤ 4.㉠ 창의적 ㉡ 비관적 5.② 6.③ 7.③ 8.③ 9.③ 10.③ 11.③ 12.⑤ 13.③ 14.㉠기본 소득 도

## 입 ㉠낙관

## 8-(1) 세종어제훈민정음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ㆍ, ㅡ, ㅣ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嬴하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야'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囡國국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흙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촉, 스몯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⑤ 37.④ 38.② 39.③ 40.① 41.④ 42.④ 43.⑤ 44.1) 어두자음군, ㅅ, ㅆ, ㅈ (2) 어렸슬, 잇서서 45.③ 46.(1) ㉠ 소리 나는 대로, ㉡ 어법에 맞게 (2) ㉢ 말씀, 놈 ㉣ 축소 47.④ 48.③ 49.④ 50.④ 51.⑤ 52.① 53.④ 54.② 55.③ 56.④ 57.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실용 정신 58.훈민정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종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ㆁ, ㄷ, ㅌ, ㅆ, ㅈ, ㅊ, ㅍ, ㅎ, ㄹ, ㅅ'를 만들었다. 중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ㆍ, ㅡ, ㅣ'를 만들었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ㅓ, ㅗ, ㅛ, ㅕ, ㅑ, ㅓ, ㅕ, ㅑ, ㅓ'를 만들었다. 중성은 중성부용초성에 의해 중성의 글자